

漢語 音變構詞과 通假字의 상관관계 및 유형 연구*

염재웅**

<目 次>

1. 서론
2. 본론
 - 1) 通假字의 詞義 발전 양상이 쌍향성(雙向性)을 가지는 용례
 - 2) 通假字의 詞義 발전 양상이 단향성(單向性)을 가지는 용례
 - 3) 通假字의 詞義 발전 양상이 단향성(單向性)과 쌍향성(雙向性)을 혼재하고 있는 용례
3. 결론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漢語의 通假字¹⁾와 音變構詞를 비교하여 初期 漢語의 語彙生成 方法을 비교 고찰하고자 하였다. 通假字와 音變構詞는 上古時期 漢語의 어휘 생성 방법 또는 어휘운용방법으로 漢語의 形音義를 변화시켜 새로운 어휘를 생성해 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通假字는 假借字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한자의 생성·운용방법인 六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說文解字敘》에서는 假借字에 대

* 이 논문은 2016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건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通假字는 통상적으로 通假字라고 하고, 音變構詞는 통상적으로 音變構詞라고 부른다. 따라서 두 성분의 명칭만 놓고 보면 형태와 유형에 있어서, 하나는 문자의 층위, 하나는 어휘의 층위로 구분되는 것처럼 보인다. 通假字는 한자의 운용원리 중 하나인 가차에서 비롯된 문자학 용어에서 유래되어 通假字라는 명칭이 붙었을 뿐, 通假字 역시 어휘층위에서 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通假字와 音變構詞에 대하여 동등하게 어휘의 층위에서 비교 분석했다.

하여 “본래 그 글자가 없으나, 소리에 빌려 사물의 의미를 의탁한다(本無其字, 依聲托事)”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許慎의 해석이 너무 간략하여 通假字의 다양한 양상을 모두 포괄할 수 없음이 역대 학자들의 학설들을 통해서 밝혀져 왔고, 通假字의 정의와 용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蔣紹愚(2005)는 漢語 詞彙學的 관점에서 通假字를 여섯 유형으로 분류하였다.²⁾ 현대 언어학자들의 通假字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보면, 고대 문헌에서 독음이 같거나 유사한 글자를 가지고 글의 문맥상 본래 쓰여야 할 글자를 대체해서 쓰는 현상을 通假字 또는 假借字라고 한다. 通假字에는 대체로 두 개의 문자(혹은 두 개의 어휘)가 등장한다. 첫 번째 문자는 해당 문헌에서 문맥상, 또한 어휘의 음의관계상 그 위치에 출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자이다. 두 번째 문자는 그 글자를 대신하여 해당 문헌 속에 기록된 문자이다. 전자를 “本字”라고 부르고, 후자를 “借字”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上”字가 借字로 쓰여 本字인 “尙”字를 나타내기도 한다. 《左傳·桓公八年》: “계량이 (자신의 隨나라의 군주에게) 말하였다. ‘楚나라 사람들은 좌측을 존귀하게 여기니, 군주께서는 반드시 좌측에 계시고, 楚나라 왕과 정면으로 마주치지 마십시오.’(季梁曰: ‘楚人上左, 君必左, 無與王遇。’)”上, 卽尙, 謂看重左方

2) 蔣紹愚《古漢語詞彙綱要》(2005:p191) “(一) 본래 해당 글자가 있는 가차자의 유형은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a) A자가 가차하여 B자 대신 쓰이되, 통상적으로 A의미는 A자로 표시하고, B의미는 여전히 B자로 표시되는 경우. (b) A자가 가차하여 B자 대신 쓰이되, 통상적으로 A의미는 여전히 A자로 표시하지만, B자는 나중에 일반적으로 B의미로 표시되는 경우. (c) A자는 가차하여 B자 대신 쓰이되, 단 A의미는 이미 A로 표시하지 않고, B의미는 일반적으로 B의미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d) A자가 가차하여 B자 대신 쓰이되, A의미는 이미 소실되어가는 경향을 띠게 되며, B의미는 일반적으로 여전히 B자로 표시되는 경우. (二) 본래 해당 글자가 없는 가차자의 유형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a) A자가 가차하여 B자의 의미를 나타내되, 다만 A의미는 여전히 A자로 표시되는 경우. (b) A자가 가차하여 B자의 의미를 나타내되, A의미는 이미 소실된 경우. [(一)本有其字的假借, 又可分爲四類. (a)A字借作B字用, 但通常A義仍用A字表示, B義也仍用B字表示. 例如: A字: 矢. A義: 箭. B字: 誓. B義: 發誓. (b)A字假借作B字用, 通常A義仍用A字表示, 但B字後來一般不表示B義. 例如: A字: 荷. A義: 荷花. B字: 何. B義: 擔荷. (c)A字假借作B字用, 但A義已不用A表示, B義一般不用B表示. 例如: A字: 草. A義: 櫟實. B字: 艸. B義: 百卉. (d)A字借作B字用, A義已趨於消失, B義一般仍用B字表示. 例如: A字: 鼯. A義: 匿鼯. B字: 朝. B義: 早晨. (二)本無其字的假借, 也還可以分成兩種情況. (a)A字借用來表示B義, 但A義仍用A字表示. 例如: A字: 女. A義: 女子. B義: 第二人稱代詞. (b)A字借用來表示B義, 而且A義已消失. 例如: A字: 難. A義: 鳥名. B義: 困難.]”

之位。이 용례에서 借字 “上”字는 실제 의미상 “존중하다. 숭상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尙”字를 本字로 보는 것이다.

音變構詞는 先秦漢語부터 음절구성요소 가운데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요소를 변화시켜 의미상 관련이 있는 어휘를 생성해내는 構詞法으로, 동일한 語源을 가지는 두 개 이상의 語彙 가운데, 하나의 어휘는 原始 語源을 보존하여 原始詞가 되고, 다른 하나 이상의 어휘는 音義關係에 있어 이 原始詞에서 파생되어 나온 滋生詞가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古代漢語에서 通假字와 音變構詞는 音韻과 詞義에서의 유사성과 연관성을 이용하여 활용되거나 파생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도 명확하게 존재한다. 通假字는 字形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서로 다른 두 개의 字形인 경우가 많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詞義의 연관성을 연계로 假借되는 어휘이다. 이에 반해, 音變構詞는 두 개 이상의 字形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체로 하나의 字形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詞義에 있어서 하나는 최초의 그 어휘의 개념을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이로부터 파생한 의미의 어휘이다. 따라서 音變構詞는 音義關係의 연관성이 通假字보다 더 긴밀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두 종류의 어휘는 예전부터 큰 범주에서 通假字의 개념 안에서 혼용되어왔다. 이러한 까닭에 通假字를 수록한 사전에는 音變構詞 어휘들이 부가설명 없이 대량으로 수록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한 양상을 정리하고 두 개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通假字 문헌자료 및 通假字 사전에 혼재되어 있는 音變構詞를 音義關係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대조했다. 通假字와 音變構詞의 개별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는 이미 많이 나와 있지만, 아직 이 두 어휘 체계 간의 연관관계를 비교하여 논의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音變構詞와 通假字의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고, 音變構詞와 通假字의 두 개의 범주에 모두 속해있는 어휘들을 선별하여 비교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音變構詞와 通假字는 古代漢語 시기에 제한된 음절과 제한된 한자 수량을 극복하기 위한 어휘 생성법이자 활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音變構詞와 通假字는 上

古漢語 시기에 이미 존재하며 先秦文獻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通假字는 古文字에서 이미 대량으로 사용되었음에서 알 수 있듯이 通假字는 漢語가 발생하기 시작한 단계에서부터 이미 존재했을 것이다. 孫玉文(2007)에 따르면, 音變構詞도 이미 先秦時期에 존재했으며 그 용례가 상고후기인 漢代 經師家들의 注釋에 대량으로 수록되어있다.³⁾ 한편 漢字의 원류인 古文자 중에서도 通假字 관련 용례들이 많다. 裘錫圭(1988)는 “一形多音義⁴⁾”이 생성되는 원인 가운데 한 가지로 “語義引申”을 꼽았다. 通假字와 音變構詞는 바로 이 “一形多音義”에 속하며, “語義引申”은 通假字와 音變構詞 생성의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본 通假字와 音變構詞의 비교 연구에는 古代漢語의 音韻, 詞義, 語法 및 字形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시도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유의하여 通假字와 音變構詞를 비교 분석했다. 첫째는 古代漢語의 通假字와 音變構詞 판별 시 어떤 문헌자료를 근거로 했는지이다. 古代 漢語, 특히 先秦시기의 문헌의 수량은 제한이 있으므로 通假字와 音變構詞의 연구에도 대체로 비슷한 문헌을 근거로 한다. 만약 동일한 문헌자

3) 孫玉文(2007:pp.407-409): “한대의 음주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음주로, 그 중에 적지 않은 音變構詞의 현상이 반영되어 있다. …… 당연히 여러 학자들의 증거는 대부분 漢魏 經師의 음주에 제한되어있지만, 상고후기에 변조자가 출현했다는 관점의 이론은 여전히 많지 않다. 만약 여타의 자료들과 결합하여 연구한다면 여러 학자들이 얻어낸 기본적인 결론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漢代的音注是我們今天見到的最早音注, 其中就反映了不少音變構詞的現象。……當然, 諸家的證據多限於漢魏經師的音注, 論證上古後期已出現變調構詞的角度還是少了; 如果結合其他材料, 更可以證明諸家得出的基本結論是不可動搖的。)”

4) 裘錫圭(1988:p.255): “語義引申은 漢語에 있어 빈번히 보이는 현상이다. 하나의 基本義는 종종 몇 개의 引申義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強’의 假借義는 ‘강하고 약하다’라고 할 때의 (強)의 의미인데 인신되어 ‘억지로 하다’라는 의미의 (強)이 되었다. 引申義와 引申이 완료된 후의 의미 사이에는 때로 동일한 어휘의 서로 다른 의미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동일하지 않은 어휘이지만 派生사와 源시사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 派生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源시사와는 완전히 동음은 아니다. 따라서 인신은 ‘一形多音義’현상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語義引申是漢語裏極其常見的現象。一個的本義往往可以產生出幾個引申義。引申義本身以及假借義也都可以引申出新的意義。例如: ……‘強’的假借義強弱的(強)又引申而爲勉強的(強)。引申義跟所從引申的意義, 有時是同一個詞的不同意義, 有時是不同的詞, 即派生詞跟母詞。派生詞有很大一部分跟母詞不完全同音。所以引申是造成一形多音義現象的重要原因。)”

료를 가지고 通假字로 판단하고 동시에 音變構詞로도 판단했다면, 그 분류기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詞義 발전의 양상의 측면에서 通假字의 本字와 借字 사이에 형성된 단일방향 가차관계와 양방향 가차관계가 音變構詞의 단향성과 비교하여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通假字의 本字와 借字 및 音變構詞의 原始詞와 滋生詞간의 다양한 연관관계에 대해 주목했다.

본 연구에서 통가자의 용례 탐색은 《通假字彙釋(이하 “彙釋”로 약칭함)》을 참고하였고, 음변구사의 용례는 《漢語變調構詞考辨(이하 “變調考辨”로 약칭함)》을 참고하였다. 《彙釋》은 上古漢語 이래 문헌으로 전해오는 3,600여개의 통가자와 해당 용례를 수록하여 현재 수록 자료가 가장 많은 통가자사전이라 할 수 있다. 音變構詞 方面에 있어서는 기존의 四聲別義에 대한 자료는 적지 않으나, 音變構詞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철두철미하게 연구한 자료는 《變調考辨》이 최고이다. 본문에서는 《彙釋》과 《變調考辨》에서 詞義 발전 양상의 관점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비교 분석했다.

2. 본론

1) 通假字의 詞義 발전 양상이 쌍향성(雙向性)을 가지는 용례⁵⁾

① 疑：擬

許慎의 《說文解字(이하 ‘說文’으로 약칭함)》에서는 “疑”字를 “‘의혹되다’라는 의

- 5) 通假字는 문맥상 해당 문장에 있어야 할 글자를 本字라고 하고, 그 글자를 대신 해서 쓰인 글자를 借字라고 한다. 어떤 通假字의 本字를 “a”, 借字 “b”라고 하고, 어떤 문헌에서도 本字를 “a”, 借字 “b”인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경우를 “단향성(單向性)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어떤 通假字는 어떤 문헌에서 本字가 “b”, 借字가 “a”로 쓰이는 상황이 있다. 이런 경우를 “쌍향성(雙向性)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通假字를 詞義 발전이 本字에서 借字로 단일방향으로만 고정적으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한 문헌에서 本字와 借字의 관계가 다른 문헌에서는 뒤바뀌어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단향성(單向性)”과 “쌍향성(雙向性)”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音變構詞는 原始詞에서 滋生詞로 인신된 까닭에, 詞義 발전 양상을 기준으로 하면 “단향성(單向性)”만을 가지는 어휘이다. 본 논문은 通假字의 本字

미이다. (疑, 惑也。) ”라고 하였다. “疑”字는 甲骨文과 金文에 모두 보인다. 郭沫若是 《卜辭通纂》에서 “갑골문에서는 사람이 지팡이를 잡고 밖에 나가 다니다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조망하다”는 의미이다. 金文 《伯疑父殷》의 용례에서는 …… 義符가 辵部인데, 이 글자는 義符 ‘辵’부와 같은 의미이고 聲符는 ‘牛’이다. 秦刻《詔版》의 용례에서는 …… 義符는 생략된 ‘辵’부이고 聲符는 ‘子’이다. 小篆에서는 …… 비록 다소 變(譌變)되었지만, 이 글자도 聲符는 ‘子’이다. 聲符 ‘子’, 聲符 ‘牛’는 ‘疑’자와 같이 ‘之’部이다. ((甲文) 像人持杖出行而仰望天色。金文《伯疑父殷》文……從辵, 與此從辵同意, 牛聲也。秦刻《詔版》文……從辵省(省辵存止), 子聲也。小篆……雖稍譌變, 亦從子聲。子聲、牛聲與疑同在之部也。) ”라고 하였다. 이처럼 고문자 자형으로부터 “疑”字의 基本義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說文》에서 “擬”字에 대해서 “‘헤아리다’라는 의미이다.(擬, 度也.) ”라고 풀이하였다. 그러나 “擬”字는 甲骨文과 金文에서 모두 보이지 않는다.

“疑”字 “擬”字의 通假 관계는 두 방향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우선 “疑”字가 “擬”字의 通假字로 쓰인 용례에 대해서 《彙釋》⁶⁾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疑”字는 “擬”(止疑上)字의 통가자이다. “헤아리다”라는 의미이다. 《說文》에 보인다. 《儀禮·士相見禮》에서 “사적으로 군주를 알현할 때는 반드시 군주께서 남쪽을 보고 있음을 확인하고 북쪽을 향해 절을 한다. 만약 군주께서 남쪽을 보고 있지 않으면 신하는 정면을 보고 절을 하되, 군주의 방향을 헤아리면 안 된다.(凡燕見于君, 必辯君之南面; 若不得, 則正方, 不疑君。) ”라고 했다. 疏에서는 “군주의 얼굴 위치를 예상하고 비스듬하게 군주를 향해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不可預度君之面位, 邪立嚮之。)”

한편 “擬”字가 “疑”字의 通假字로 쓰인 용례에 대해서 《彙釋》⁷⁾에서 다음과 같이

와 借字의 詞義 발전 양상이 양방향으로 작동하는 쌍방향성을 가지는지, 단일방향으로 작동하는 단방향성을 가지는지에 따라 본론에서 세 개의 절로 나누어 서술했다.

6) 《彙釋》(p.696) “疑”字條: 通“擬”(止疑上)。①忖度。見《說文》。《儀禮·士相見禮》: “凡燕見于君, 必辯君之南面; 若不得, 則正方, 不疑君。”疏: “不可預度君之面位, 邪立嚮之。”

7) 《彙釋》(p.529) “擬”字條: 踰度, 比照。《說文》: “擬, 度也。” …… 通“疑”(之疑平)。猶豫, 遲疑。見《說文》。《墨子·明鬼下》: “是以莫放(敢)幽間, 擬乎鬼神之[有]。”高亨新箋: “擬借爲

서술하고 있다.

“擬”자는 “疑”(之疑平)자의 통가자이다. “주저하다. 의심을 가지다”라는 의미이다. 《說文》에 보인다. 《墨子·明鬼下》에는 “이것으로써 어두운 방에 두지 말라, 귀신이 존재함을 의심할 것이다.(是以莫放(敢)幽間, 擬乎鬼神之[有].)”라고 하였고, 高亨新箋에서는 “‘擬’자는 ‘疑’자의 가차이다.(擬借爲疑.)”라고 하였다.

위의 내용을 기초로 “疑”字와 “擬”字의 通假關係를 살펴보면, “擬”字는 借字로서 本字인 “疑”字를 가차하여 通假字로 쓰였고, 音義關係에서 보면 이 두 글자는 음절구성요소 가운데 오직 성조만 차이가 있고, 어의(語義)에 있어서는 원시사(原始詞)와 이로부터 파생된 자생사(滋生詞)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變調考辨》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疑”字는 원시사로 “의심을 품다”, “의심하다”라는 의미이고, 동사이며, 평성이다. “擬”字는 자생사로 “헤아리다”, “생각하다”라는 의미이며, 이로부터 “비교하다”, “비유하다”라는 의미로 인신되었다. 동사이며, 거성이다. “擬”字가 “疑”字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유사한 용례를 통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다. (一) “測”은 “헤아리다”라는 의미이며, “예측하다, 추측하다, 예상하다”라는 의미도 있다. 《荀子·勸學》에는 “예와 법을 말하지 않고, 《詩》와 《書》로 하는 것은, 마치 손가락으로 강물의 깊이를 예측하는 것과 같다.(不道禮憲, 以《詩》《書》爲之, 譬之猶以指測河也.)

이상의 자료를 통해서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역대 주석가들은 “疑”字와 “擬”字는 古代漢語에서 通假關係를 형성한다고 보고 注釋을 가했지만, 音義關係의 관점에서 보면 “疑”字가 원시사이고 “擬”字가 자생사인 變調構詞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疑。”

8) 《變調考辨》(p.1595) 疑(滋生詞作“擬”) “疑：原始詞，義爲懷疑，猜疑，動詞，語其切(平聲)。滋生詞，義爲忖度，思量，引申爲比，比擬，動詞，字作“擬”，魚紀切(上聲)。“擬”來自“疑”，平行的例子可證。(一)“測”有“測量”義，又有“估計，猜度，預料”義，《荀子·勸學》：“不道禮憲，以《詩》《書》爲之，譬之猶以指測河也。”……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古代漢語에서 “疑”字는 “擬”字를 가차하여 쓰이기도 하고, “擬”字는 “疑”字를 가차하여 通假字로 쓰이기도 했다. 바꿔 말하면 “擬”字와 “疑”字의 通假 관계는 양방향으로 가차되었다는 것이다. 變調構詞은 原始詞에서 인신하여 滋生詞로 한 방향으로만 발전하므로 반드시 단일방향으로 파생된다. 詞義 발전 양상의 관점에서 보면, “疑”字와 “擬”字의 通假字는 쌍향성(雙向性)을, “疑”字와 “擬”字의 音變構詞은 단향성(單向性)을 가지고 있다.

② 福 : 富

《說文》에서는 “福”字에 대하여 “福”字는 ‘돕다’라는 의미이다.(福, 祐也。)”라고 풀이하였다. 羅振玉은 《增訂殷虛書契考釋》에서 “갑골문에서는 두 손으로 술잔을 들고 제대 앞에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어떤 글자에는 ‘卍’字符가 생략되어있고, 어떤 글자에는 ‘示’字符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것이 곧 후대의 ‘福’字이다. ((甲文)象兩手奉尊于示前, 或省卍, 或并省示, 卽後世之福字。)”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說文》에서는 “富”字를 “준비하다”라는 의미이다. 일설에는 ‘두텁다’라는 의미이다.(富, 備也。一曰厚也。)”라고 풀이했다. 이처럼 고문자 자형으로부터 “福”字와 “富”字의 基本義를 확인할 수 있다.

《彙釋》⁹⁾에서는 “富”字가 “福”字의 통가자로 사용된 용례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富”자는 “福”(宥非去 職幫)자의 통가자이다. ‘완비하다, 풍부하다’라는 의미이다. 《說文》에 보인다. 《易·家人》에는 “육사괘, 부유한 집안이 크게 길하다.(六四, 富家大吉。)”라고 하였다. 疏에서는 “부란 녹을 받는 지위가 창성하다는 것을 말한다.(富謂祿位昌盛也。)”라고 하였다. ○朱駿聲《說文通訓定聲》에서는 “富”字는 ‘福’字로 가차되었다.(富, 假借爲福。)”라고 하였다.

9) 《彙釋》(p.289) “富(宥非去 職幫)”字條: 完備; 豐厚。《說文》: “富, 備也。一曰厚也。” 通“福”(屋非入 職幫) 指壽考富貴等。見《說文》。《易·家人》: “六四, 富家大吉。” 疏: “富謂祿位昌盛也。” ○朱駿聲《說文通訓定聲》: “富, 假借爲福。”

또한 《彙釋》¹⁰⁾에서 “福”字が “富”字의 통가자로 사용된 용례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福”字는 “富”字의 통가자이다. “많다. 충족하다”라는 의미이다. 《說文》에 보인다. 《禮記·郊特性》에서는 “富라는 것은 ‘福이 있다’는 의미이다.”라고 했다. 注에서는 “혹자는 ‘福이라는 것’은 ‘구비하다’라는 의미이다.”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福”字와 “富”字의 通假關係를 살펴보면, “福”字는 借字로서 本字인 “富”字를 가차하여 通假字로 쓰였고, “富”字도 借字로서 本字인 “福”字를 가차하여 通假字로 쓰였다. 音義關係에서 보면 이 두 글자는 음절구성요소 가운데 오직 성조만 차이가 있고, 원시사(原始詞)로부터 파생된 자생사(滋生詞)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變調考辨》¹¹⁾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福”자는 원시사로 ‘귀신에게 사람에게 부귀와 장수를 가져다주다’라는 의미이고, 동사이며, 발음은 方六切의 短入이다. 자생사로 ‘재물이 많다’라는 의미이고, ‘빈곤’과 상대되는 개념이며 형용사이다. 문자로는 “富”라고 쓰고, 발음은 方副切의 長入이다. 《釋名·釋言語》에서는 “福이란 ‘富’이다. 그 집안에 많은 물건이 있어 부유한 것이다.(福, 富也, 其中多品如富者也.)”라고 하였다. 王力은 《漢語詞彙史》第三章 《滋生詞》에서, “福: 富”을 인과구사(因果構詞)이며, ‘福’자는 원시사이고, ‘富’자는 자생사이다. ‘福’자는 ‘귀신이 보우하다’라는 의미이다. ‘富’로 파생되어 ‘재물이 많다’는 의미이고, 옛사람들은 신이 도와준 결과로 생각했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역대 주석가들은 “福”字는 “富”字가 通假關係를 형성한다고 보았지만,

10) 《彙釋》(p.634) “福(屋非入 職幫)”字條: 通“富”(宥非入 職幫) 多, 充裕. 見《說文》. 《禮記·郊特性》: “富也者, 福也.” 注: “或曰: 福也者, 備也.”

11) 《變調考辨》(p.78) “福(滋生詞作‘富’) 原始詞, 義爲鬼神佑助給人帶來富貴壽考等. 動詞, 方六切(短入). 滋生詞, 義爲多財, 與‘貧’相對, 形容詞, 字作‘富’, 方副切(長入). 《釋名·釋言語》: “福, 副也, 其中多品如富者也.” 王力《漢語詞彙史》第三章《滋生詞》中, 把“福: 富”看作因果構詞, “福”是原始詞, “富”是滋生詞: “福, 鬼神佑助, 滋生爲富, 多財, 古人以爲是神祐的結果.”

음의관계에서 보면 원시사 “福”字에서 자생사 “富”字가 파생된 變調構詞로 보아야 한다. 古代漢語에서 이 두 글자의 通假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福”字가 “富”字의 통가자가 되기도 하고 “富”字가 “福”字의 통가자가 되기도 하는 문헌기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글자는 양방향으로 가차되었다. 變調構詞로서의 “福”字와 “富”字는 단일방향이다. 따라서 詞義 발전 양상의 관점에서 보면, “福”字와 “富”字는 通假字에 있어서는 쌍방향(雙向性)을 가지고, 變調構詞에 있어서는 단방향(單向性)을 가진다.

2) 通假字의 詞義 발전 양상이 단방향(單向性)을 가지는 용례

③ 之 : 志

《說文》에서는 “之”字에 대해서 “나가다라는 의미이다. 자형은 풀에서 새싹이 땅을 지나서 나오는 형상이다. 나무줄기가 자라나면 지나는 곳이 있다. ‘一’은 땅이다. (出也。象艸過中，枝莖益大有所之。一者，地也。)”라고 풀이하였다. “之”字는 甲骨文과 金文에 모두 보이지만, 동사 “가다”라는 의미로 쓰인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高鴻縉¹²⁾은 “之”字의 甲骨文 자형에 대해서, “字符‘止’와 字符‘一’가 결합된 회의자이다. 字符‘一’은 출발선의 통상적인 형상이며, 字符‘止’는 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걸는다’는 의미가 있다. 출발선에서 걸어가는 것이므로, 이 글자는 ‘가다’라는 의미이다. (从止从一，一爲出發線通象，止爲足，有行走意，自出發線而行走，故其爲往也。)”라고 하였다. 비록 甲骨文과 金文에서 동사 “가다”라는 의미로 쓰인 용례는 없지만, 자형분석을 통해서 “之”字의 本義가 “가다”라는 의미의 동사임을 파악할 수 있다.

《說文》에서는 “志”字에 대해서 “뜻이라는 의미이다. ‘心’을 義符로 하고, ‘之’을 聲符로 한다. (意也。從心，之聲。)”라고 풀이하였다. “志”字는 갑골문에는 없지만, 금문에서는 “𠄎”(中山王壺)字가 있다. 中山王壺의 용례는 “재상 貯는 마음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 (貯渴(竭)志盡忠。)”라는 예문이 있는데, 이 용례에서

12) 《金文常用字典》(p.637) 수록 내용 재인용

의 “志”字的 의미는 “마음. 지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고문자의 字義로부터 “之”字的 本義는 “가다”라는 의미의 동사이고, “志”字的 本義는 “마음. 지향”이라는 의미의 명사임을 알 수 있다.

《彙釋》¹³⁾에서는 古代漢語에서 “之”字的 통가자를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그 가운데 “之”字와의 밀접한 音義關係를 가지고 있는 통가자들은 “止”字와 “志”字 두 글자이다. 우선 “之”字が “止”字的 통가자로 쓰인 용례는, 《老子》33장의 “무릇 장차 그쳐야하며, 그칠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夫亦將止, 知止可以不殆。)”라는 예를 들고 있다. 河上本에서는 “之”자로 쓰여있고, 《彙釋》에서는 이를 “止”字的 가차로 보았다. 《彙釋》의 저자는 按語에서 “갑골문복사의 “之”字는 “止”字와 “一”字的 결합으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止”字와 통가할 수 있다.(按：甲骨文卜辭“之”從“止”從“一”，故可與“止”通假。)”라고 하였다. 이는 고문자의 자형상의 구조로 볼 때 타당성이 있는 분석이다. 그러나 “之”字와 “止”字는 고문자의 字形의 유사성이 있지만, 字義의 측면에서 보면 두 글자는 완전히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音義關係상 어느 한 글자로부터 다른 글자가 파생되어 나오는 詞義引伸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之”字와 “止”字的 관계는 단순한 통가자의 관계이다.

“之”字가 “志”字的 通假 關係에 대해서 《彙釋》¹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용례를 들었다.

《墨子·天志中》중의 “그러한 즉 하늘의 의지는 장차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할 것인가?(然則天之將何欲何憎?)” “天之란 바로 ‘天志(하늘의 뜻)’, ‘天意(하늘의 의지)’이며, ‘之’字와 ‘志’字는 同音通借字이다.”

이 용례에 대하여, 畢沅은 《墨子集注》에서 “之”字 다음에 마땅히 ‘意’字가 있어야 한다.(之下當有意字。)”라고 하였다. 畢沅은 이 용례에서의 “之”字는 단순히

13) 《彙釋》(p.13) “之”字條：《說文》：“之，出也。”一、通“止”(止章上)。停止，靜止。《老子》三十二章：“夫亦將止，知止可以不殆。”河上本作“之”，即“止”之借。○按：甲骨文卜辭“之”從“止”從“一”，故可與“止”通假。

14) 《彙釋》(p.13) “之”字條：三、通“志”(止以上)。意志。《墨子·天志中》：“然則天之將何欲何憎?”天之，即天志，天意，“之”、“志”同音通借。○按：“之”字借作“志”，多見於《墨子》，他書尚未發現。

定語와 中心語를 잇는 助詞라고 보았고, “天之意”라고 쓰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 이 용례의 바로 앞부분은 “이미 하늘의 의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겼다.(既以天之意以爲不可不慎已。)”이라는 구문이다. 여기에서 명확하게 “天之意”라고 하였기에 바로 다음 구문에서 “天之” 두 글자 뒤에 “意”자가 있어야 한다는 畢沅의 생각은 합리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彙釋》의 저자는 按語에서 “之”자가 ‘志’자로 통가자로 쓰인 용례는 《墨子》에서 많이 보인다. 다른 문헌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按：“之”字借作“志”，多見於《墨子》，他書尚未發現。) ”라고 하였다. 《彙釋》의 저자는 《墨子》에서 “天之”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다른 문헌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은, 《墨子》에서 의도적으로 “天之”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는 곧 “天志”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墨子》에서는 “天意” 또는 “天志”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따라서 《墨子》중의 “天之”는 “天之意”로 해석해도 되고, “天志”의 通假字로 보아도 의미상 문제가 없다. 畢沅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지만, 《彙釋》에서 “天之”를 “天志”의 통가자로 본 견해를 부정할 근거는 없다. 이 용례에서는 通假字의 借字 “之”字는 本字 “志”字를 가차하여 통가자로 쓰였다.

音義關係의 관점에서 보면 “之”字와 “志”字는 음절구성요소 가운데 성조가 각각 平聲과 去聲으로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요소는 동일하다. 의미관계에 있어서는 원시사(原始詞)와 자생사(滋生詞)의 관계로 볼 수 있다. “之”字와 “志”字의 音義關係에 대하여, 《變調考辨》¹⁵⁾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之”자는 원시사로 ‘어떤 곳에 가다’, ‘어떤 곳에 나아가다’라는 의미이고, 품사는 동사이며, 발음은 ‘止而切’로 평성이다. “志”자는 자생사로 ‘미래에 대한 결심, 포부, 지향’이라는 의미이고, 품사는 명사이며, 발음은 職吏切이고 거성이다. 《說文》의 心部에서는 “志”이란 ‘의지’라는 의미이다. ‘心’자와 ‘之’자로 구성된 글자이고, ‘之’는 또한 성부이다.”라고 하였다. 이 설명은 실질적으로 “志”자가 “之”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유사한 용례를 통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다. (一) “趨(趣)”은 ‘신속하게 어떤 곳

15) 《變調考辨》(p.1595) 之(滋生詞作“志”) “原始詞，義爲到某地去，前往某地，動詞，止而切(平聲)。滋生詞，義爲對於未來的決心，抱負，志向，名詞，職吏切(去聲)。《說文》心部：“志，意也。從心之，之亦聲。”這實際上已經指出了“志”來自“之”。平行例子可證。(一)“趨(趣)”是“快速地向某一地方”的意思，發展出“思想、感情上的趨嚮，趨嚮”的意思。……

을 향해 나아가다'라는 의미로, '사상, 감정상의 취향'이라는 의미로 발전했다.

《變調考辨》에서는 “之”字가 原始詞로 사용된 용례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개의 용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詩·衛風·伯兮》에는 “伯지방에 동쪽으로 갈 때, 머리는 봉두난발이 되었다.(自伯之東, 首如飛蓬。)”

《論語·公治長》에는 “한 나라에 갈 때, ‘마치 나의 대부 최자와 유사하다. 그 뜻을 위배하면 어떻겠는가?’(之一邦, 則又曰: 猶吾大夫崔子也, 違之, 何如?)”

《變調考辨》에서는 “志”字가 滋生詞로 사용된 용례는 다음과 같다.

《書·舜典》에는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노래는 말을 길게 하는 것이며, 음악은 소리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詩言志, 歌永言, 聲依永, 律和聲。)”

이상에서 古代漢語 通假字 “之”字와 “志”字의 연관관계를 살펴보면 “之”字는 借字로서 本字인 “志”字를 가차하여 通假字로 쓰이기도 했고, 음의관계의 연관성에 있어서는 원시사와 자생사의 관계를 형성하는 變調構詞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古代漢語에서 “之”字는 “志”字를 가차하여 通假字로 쓰였지만, 역으로 “志”字는 “之”字를 가차하여 通假字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之”字와 “志”字의 通假 관계는 단일방향으로만 가차되었을 뿐, 양방향으로 가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變調構詞는 原始詞에서 인신하여 滋生詞로 한 방향으로만 발전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단일방향으로만 파생한다. 한편 詞義 발전 양상의 관점에서 보면, “之”字와 “志”字의 通假字 및 音變構詞는 단향성(單向性)이라는 공통점은 있다.

音變構詞의 原始詞와 滋生詞, 通假字의 本字와 借字 사이의 대응관계를 살펴보면, 音變構詞의 原始詞 “之”字는 通假字의 借字로 대응하고, 音變構詞의 滋生

詞“志”字는 通假字의 本字로 대응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④ 采 : 菜

《說文》에서 “采”字에 대해서 “(손으로) 훑어서 채집하다. (采, 捋取也。)”라고 풀이했다. 羅振玉은 “采”字의 자형에 대하여 《增訂殷虛書契考釋》에서 “나무에서 과실을 채취하는 모양을 형상화했다. 그래서 ‘爪’, ‘果’를 義符로 삼았고, ‘果’의 일부 자형이 생략된 ‘木’를 자형으로 삼았다. ‘과실을 채취한다’는 의미의 ‘采’에서 ‘나무를 하다’라는 의미 또는 ‘선택하다’라는 의미로 인신되었다. (象取果於木之形, 故從爪、果, 或省果從木。取果爲采, 引申而爲樵采及凡采擇。)”라고 하였다. 前5.36.1(甲)]을 보면 羅振玉이 설명했던 것처럼 나무에서 과실을 채취하는 자형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說文》에서 “菜”字에 대해서 “풀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이다. (菜, 艸之可食者。)”라고 풀이했다.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이는 형성과 회의를 겸하며, 옛날에는 대다수의 경우에 ‘采’字로 ‘菜’를 대신했다. (此舉形聲包會意, 古多以采爲菜。)”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고문자 자형으로부터 “采”字와 “菜”字의 基本義를 확인할 수 있다.

古代漢語에서 “采”자는 “菜”자와 음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통가 관계인데, 《彙釋》¹⁶⁾에서는 “采”자와 “菜”자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采”자는 “菜”(海清上 之清)자의 통가자이다. “채소”라는 의미이다. 《說文》에 보인다. 《周禮·春官·大胥》에는 “봄에 입학하여, 채소를 내려놓고 함께 춤을 춘다. (春入學, 舍采合舞。)”라고 하였다. 注에서는 “采”자는 “菜”로 독음한다(采, 讀爲菜). 처음 입학하면 반드시 채소(菜)를 내려놓고, 스승님께 예를 갖추는데, 채소(菜)란 물품에 속하는 것이다.

음의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采”자와 “菜”자는 단순한 통가관계가 아니다. 音韻上

16) 《彙釋》(p.930) 采(海清上 之清) 摘取。《說文》:“采, 捋取也。”一、通“菜”(代清去 之清)。蔬菜。見《說文》。《周禮·春官·大胥》:“春入學, 舍采合舞。”注:“采, 讀爲菜。始入學必釋菜, 禮先師也。菜, 蘋蘩之屬。”

으로는 이 두 글자의 음운요소 가운데 오직 성조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語義상으로는 이 두 글자는 引申關係를 이루는 音義關係가 밀접한 原始詞과 滋生詞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變調考辨》¹⁷⁾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采”자는 원시사로 ‘손가락으로 따다. 고르다. 채취하다’라는 의미이고, 동사이며, 발음은 倉宰切의 上聲이다. 자생사로 ‘채소’라는 의미이고, 명사이며, 문자로는 “采”자로 쓰고, 발음은 倉代切의 去聲이다. 일찍이 학자들은 “采”자가 “采”자에서 유래했음을 알고 있었다.……裘錫圭선생의 《文字學概要》八《形聲字》에서는 “일부 형성자의 성부는 표의작용을 겸하고 있어서, 의미를 갖고 있는 성부의 형성자라고 칭할 수 있는 예가 있다. …… ‘采’자는 ‘사람이 손으로 채집해서 먹는 초본식물’이라는 의미로, 《睡虎地秦簡》과 일부 고서에서는 ‘采’자로서 ‘채소 {采}’라는 의미를 대표하고 있다.

이상에서 古代漢語 중 通假字 “采”字와 “采”字의 연관관계를 살펴보면 “采”字는 借字로서 本字인 “采”字를 가차하여 通假字로 쓰였고, 음의관계의 연관성에 있어서는 원시사와 자생사의 관계를 형성하는 變調構詞로 쓰였다. 주의해야 할 것은 古代漢語에서 “采”字는 “采”字를 가차하여 通假字로 쓰였지만, 역으로 “采”字는 “采”字를 가차하여 通假字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采”字와 “采”字의 通假關係는 단일방향으로만 가차되었을 뿐, 양방향으로 가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變調構詞는 原始詞에서 引申하여 滋生詞로 한 방향으로만 발전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단일방향으로만 파생한다. 한편 詞義 발전 양상의 관점에서 보면, “采”字와 “采”字의 通假字 및 音變構詞는 單向性이라는 공통점은 있다.

音變構詞의 原始詞과 滋生詞, 通假字의 本字와 借字 사이의 대응관계를 살펴 보면, 音變構詞의 原始詞 “采”字는 通假字의 借字로 대응하고, 音變構詞의 滋生詞 “采”字는 通假字의 本字로 대응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17) 《變調考辨》(p.32) 采2(滋生詞作“采”)原始詞, 義爲用手指摘取, 擇, 採取, 動詞, 倉宰切(上聲)。滋生詞, 義爲蔬菜, 字作“采”, 倉代切(去聲)。早已有學者認識到“采”來自“采”。《說文》艸部:“采, 艸之可食者, 從艸, 采聲。”實際上, 許慎已經意識到“采”來自“采”, 可以採來吃的草就是“采”。所以段注說:“此舉形聲包會意。古多以采爲菜。”……裘錫圭《文字學概要》八《形聲字》中說:“有些形聲字的聲旁兼有表意作用, 可以稱爲有義的聲旁的形聲字的例子……采: 爲人所採食的草類植物(睡虎地秦簡和有些古書以采表 {采}。)”

3) 通假字의 詞義 발전 양상이 단향성(單向性)과 쌍향성(雙向性)을 혼재하고 있는 용례

⑤ 直 : 值 : 植

《說文》에서는 “直”字에 대해서 “똑바로 쳐다보다라는 의미이다.(直, 正視也.)”라고 풀이하였는데, 이로부터 “올바르다”, “사악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파생되었다. 또한 《說文》에서 “值”字에 대해서 “두다라는 의미이다.(值, 措也.)”라고 풀이했고, “植”字에 대해서는 “문을 잠그는데 쓰는 나무 빗장이라는 의미이다.(植, 戶植也.)”라고 풀이하였다. 이처럼 고문자 자형으로부터 “直”字, “值”字, “植”字의 基本義를 확인할 수 있다.

《彙釋》¹⁸⁾에서는 “直”字가 本字이고, “值”字가 借字로 쓰인 通假 關係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直”자는 “值”(職澄入 職定)자의 통가자이다. ①“당면하다”, “때마침 마주 치다”, “정면으로 대면하다”라는 의미이다. ……《漢書》卷二十三《刑法志》에는 “위나라의 무장 군인은 진나라를 마주하고 있는 정예의 군인이 아니다.(魏之武卒不可以直秦之銳士.)”라고 하였다. ……②“업무에 임하다”, “근무하다”라는 의미이다. 《列子·黃帝》에는 “가서 시위로 근무하였고, 매달 아 놓은 종을 철거하고, 주방의 좋은 음식을 줄이고, 물러나 한가로이 큰 마당이 있는 집에 머물렀다.(去直侍, 徹鍾懸, 減廚膳, 退而閑居大庭之館.)”……

또한, 《彙釋》¹⁹⁾에서 “值”字가 本字이고, “直”字가 借字로 쓰인 通假 關係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8) 《彙釋》(p.20) 直(職澄入 職定)目不旁視《說文》:“直, 正視也。”引申爲正, 不邪等。一、通“值”(職澄入 職定)。①當, 恰逢; 正對。……《漢書》卷二十三《刑法志》:“魏之武卒不可以直秦之銳士。”注:“直, 亦當也。”…… ②當班, 值勤。《列子·黃帝》:“去直侍, 徹鍾懸, 減廚膳, 退而閑居大庭之館。”

19) 《彙釋》(p.67) 值(職澄入 職定)措置。…… 一、通“直”(職禪入 職禪)。①正, 不彎曲。見《說文》。《文選》卷二十南朝宋顏延之《皇太子釋奠會作詩》:“邊彼前文, 規周矩值。”按: 值, 當讀爲“直”。規周矩直, 言如規之圓, 如矩之正。

“值”字는 “直”(職禪入 職禪)字의 통가자이다. ①“올바르다, 구부러지지 않다”라는 의미이다. 《說文》에 보인다. 《文選》卷二十南朝宋顏延之《皇太子釋奠會作詩》에서 “그 전대의 문장을 멀리하면, 그림쇠처럼 둥글고, 곱자처럼 반듯하다.”라고 하였다. “值”字는 응당 “直”으로 독음해야 한다. “規周矩直”이란, “그림쇠처럼 둥글고, 곱자처럼 반듯하다.”라는 의미이다.

“直”字와 “值”字의 通假 關係는 한편으로는 “直”字가 本字, “值”字가 借字로 쓰이거나, 또 한편으로는 “值”字가 本字, “直”字가 借字로 쓰이는 양방향의 假借현상이 보인다. 그러나 “直”字와 “植”字의 通假 關係는 양상이 다르다. “直”字가 本字이고, “植”字가 借字로 쓰인 通假 關係에 대해서 《彙釋》²⁰⁾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直”字는 “植”(職禪入 職禪)字의 통가자이다. “세우다”라는 의미이다. 《說文》에 보인다. 《禮記·檀弓下》에서는 “쫄나라에서 독단적이고 강직하게 행동했다.(行並植²¹⁾於晉國.)”

이처럼 “直”字와 “植”字의 通假 關係는 오직 “直”字가 本字이고, “植”字가 借字로 쓰인 단일방향의 假借만 나타나는 반면, “直”字와 “值”字의 通假 關係는 양방향의 假借가 나타난다.

音義關係에서 “直”字, “值”字, “植”字를 살펴보면, 이 글자들은 음운학적으로 음절구성요소 가운데 오직 성조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語義에서는 原始詞와 滋生詞의 관계이다. “直”字와 “值”字의 음의관계에 대해서 《變調考辨》²²⁾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 《彙釋》(p.20) 直(職澄入 職定) 目不旁視 《說文》: “直, 正視也。”引申爲正, 不邪等。……二、通“植”(職禪入 職禪)。①立。見《說文》。《禮記·檀弓下》: “行並植於晉國。”

21) 《漢語大詞典》(p.82) 並植: 謂專擅而剛強。《禮記·檀弓下》: “……文子曰: “行並植於晉國。”鄭玄注: “並, 猶專也。謂剛而專已。”孔穎達疏: “植, 謂剛強也。”

22) 《變調考辨》(p.87) 直1(滋生詞作“值”) 原始詞, 義爲成直線形狀, 與“曲”相反, 引申爲正直, 形容詞, 除力切(短入)。滋生詞, 義爲當, 正當, 臨, 動詞, 後起字作“值”, 直吏切(長入)。“直”의 “當, 正當”義來自“正直”義, 有不少平行的例子可證。(一)“正”有“直, 不彎曲, 不歪斜”的意思, 例如《書·說命上》: “惟木從繩則正。”傳: “言木以繩直。”……又有“正好, 恰好”的意思, 《史記·樗里子甘茂列傳》: “至漢興, 長樂宮在其東, 未央宮在其西, 武庫正植其墓。”

“直1”자는 원시사로 직선의 형상이라는 의미이다. ‘구부러지다’와 상반된 의미로, 정직하다는 의미로 인신된다. 형용사이다. 발음은 除力切(短入)이다. 자생사는 ‘당면하다. 정당하다. 임하다’라는 의미이고, 동사이다. 발음은 直吏切(長入)이다. “直”자의 “당면하다. 정당하다(當, 正當)”라는 의미는 “정직하다(正直)”라는 의미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평행한 용례가 있다. (一)“正”字는 “곧다, 완곡하지 않다, 빼놓이지 않다”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書·說命上》에서는 “나무가 밧줄로 곧게 만든다.(惟木從繩則正。)”라고 했는데, 傳에서는 “나무를 밧줄로 곧게 만든다는 말이다.(言木以繩直。)”라고 했다.…… 또한 (“正”字에는) “때마침, 바로”라는 의미가 있다. 《史記·樗里子甘茂列傳》에는 “한나라가 흥성한 때에 이르러 장락궁이 그 동쪽에 있었고, 미양궁은 서쪽에 있었으며, 무기고는 바로 그 묘소 앞에 있다.(至漢興, 長樂宮在其東, 未央宮在其西, 武庫正直其墓。)”라고 하였다.

이 설명은 《彙釋》에서 “直”字와 “植”字의 通假關係를 설명한 부분과도 관련 깊다. 이 두 글자를 通假字로 볼 수도 있고, 變調構詞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두 글자에 대한 각각의 해석은 모두 고대 문헌 기록 중 注釋의 설명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語義의 해석으로도 “直”字와 “植”字가 각기 가지고 있는 “정직하다(正直)”라는 의미와 “당면하다(正當)”라는 의미 사이에 반드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直”字와 “植”字의 음의관계에 대해서 《變調考辨》²³⁾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直2”는 원시사로 직선의 형상이라는 의미이다. ‘구부러지다’와 상반된 의미로, 정직하다는 의미로 인신된다. 형용사이다. 발음은 除力切(短入)이다. 자생사는 ‘수립하다’, ‘세우다’라는 의미이다. 동사이다. 글자는 “植”으로 쓴다. 발음은 直吏切(長入)이다. ……“수립하다. 세우다(樹立, 豎立)”라는 의미의 “植”자는 “직선모양”이라는 의미의 “直”자에서 유래했다. 평행하

23) 《變調考辨》(p.89) 直2(滋生詞作“植”) 原始詞, 義爲成直線形狀, 與“曲”相對; 引申爲正直, 形容詞, 除力切(短入)。滋生詞, 義爲樹立, 豎立, 動詞, 字作“植”, 直吏切(長入)。……“樹立, 豎立”의 “植”來自“成直線形狀”의 “直”, 平行的例子可證。(一)“豎”有“跟地面垂直的”和“從上到下的, 從前到後的”意思, 又有“使物體跟地面垂直”的意思。(二)“橫”有“橫的方向”的意思, ……《淮南子·原道訓》:“(道)植之而寒於天地, 橫之而彌於四海。”這後一例很典型, 動詞“植”和動詞“橫”構成反義詞。

는 예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一)“豎”자는 “지면과 수직인”, “위에서 아래로, 앞에서 뒤로”라는 의미이고, “물체를 수직으로 세우다”의 의미도 있다. (二)“橫”자는 “가로 방향”의 의미이다.……《淮南子·原道訓》에서는 “도라는 것은 그것을 세워놓고 천지에 한기를 느끼는 것이고, 그것을 가로로 놓고 사해에 채워놓는 것이다.((道)植之而寒於天地, 橫之而彌於四海。)”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동사 “植”과 “橫”자는 반의어의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 설명 또한 《彙釋》에서 “直”字와 “植”字의 通假關係를 설명한 부분과 연관성이 깊다. 이 두 글자에 대한 해석이 모두 고대 문헌 기록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語義의 해석으로도 “直”字와 “植”字가 각각 가지고 있는 “정직하다(正直)”라는 의미와 “수립하다, 세우다(樹立, 豎立)”라는 의미 사이의 연관성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의 자료에 근거하면 古代漢語에서는 “直”字와 “植”字 및 “直”字와 “植”字 사이에 通假關係가 성립되어 있었으며, 음의관계에서 보면 “直”字가 원시사이고 “植”字와 “植”字는 이로부터 파생된 자생사인 變調構詞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詞義 발전 양상의 관점에서 보면, 古代漢語의 “直”字와 “植”字의 通假字는 쌍향성을 가지는 반면, “直”字와 “植”字의 通假字는 단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일방향으로만 파생하는 變調構詞과의 연관관계와 비교할 때, 通假字 “直”字와 “植”字의 쌍향성은 變調構詞 “直”字와 “植”字의 단향성과 불일치하고, 이와 달리 通假字 “直”字와 “植”字의 단향성은 變調構詞 “直”字와 “植”字의 단향성과 일치한다.

3. 결론

본 논문에서 분석한 通假字와 音變構詞의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첫째, 漢語에서 通假字와 音變構詞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문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漢代 이전의 上古漢語 시기의 문헌이다. 학계에서 通假字는 漢語가 생겨난 시기부터 이미 존재했을 것이며, 音變構詞가 적어도 上古漢語시기에는 존

재했을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漢語詞彙學의 분류상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진 通假字와 音變構詞라는 두 종류의 어휘에 대해, 서로 상고한어 시기에 출현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헌증거를 가지고 通假字인지, 音變構詞인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周禮·天官·典婦功》에서 “무릇 嬪婦에게 임무를 부과함에 있어, 가을철 성과를 헌상할 때에, 그 노동의 성과가 나쁜지 좋은지를 변별한다.(凡授嬪婦功, 及秋獻功, 辨其苦良。)”라고 하였고, 注에서는 “‘授’字는 마땅히 ‘受’字로 써야하며, 독음에 오류가 있다.(授當爲受, 聲之誤也。)”라고 하였는데, 이 문헌은 “受”字와 “授”字에 대한 通假字와 音變構詞의 증거로 모두 쓰인다. 이처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헌증거를 가지고 通假字나 音變構詞의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어휘로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通假라는 개념은 甲骨文 이래로 수 천 년 동안 사용되어왔으나, 音變構詞라는 용어와 개념은 현대에 와서 정립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通假字는 오랜 기간 동안 명확하게 정의 내려지지 않은 채 사용되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蔣紹愚(2005)의 분석처럼 여섯 종류의 서로 다른 유형을 포괄하고 있다. 반면 音變構詞이라는 개념은 王力, 郭錫良, 唐作藩, 孫玉文 등의 현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 정립된 것으로 그 유형의 분류와 분석이 명확하다. 어휘의 근본적인 속성을 살펴보면, 通假字는 한정된 어휘를 활용하는 방법이므로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音變構詞은 어휘의 파생 방법이므로 시작이 되는 原始詞가 있고 음절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음의관계로 인신된 滋生詞가 생성된다. 결국 通假字와 音變構詞은 어휘의 활용과 어휘의 파생이라는 서로 다른 층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어휘들 고증할 때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헌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本字와 借字은 단순한 假借關係만 있을 때는 通假字로 보아야 하지만, 原始詞와 滋生詞의 엄격한 音義關係가 존재할 때는 通假字가 아니라 音變構詞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詞義 발전 양상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通假字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의 유형은 通假字 甲字와 乙字의 두 글자가 어떤 문헌에서든 항상 甲字는 本字로, 乙字는 借字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경우 詞義의 발전 양

상에서 단향성(單向性)을 가졌다고 보았다. 또 다른 하나의 유형은 通假字 甲字와 乙字의 두 글자가 어떤 문헌에서 甲字가 本字로, 乙字가 借字로 사용되었어도, 다른 문헌에서 乙字가 本字로, 甲字가 借字로 사용되기도 한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경우 詞義의 발전 양상에서 쌍향성(雙向性)을 가졌다고 보았다. 반면에 音變構詞는 原始詞에서 衍生詞로 한 방향으로만 발전하므로 반드시 단일방향으로만 파생된다.

본 연구의 정리 분석에 따르면, 通假字에서 쌍향성(雙向性)을 가지는 용례는, “疑”字와 “擬”字의 通假字, “福”字와 “富”字의 通假字, “直”字와 “值”字의 通假字이며, 通假字에서 단향성(單向性)을 가지는 용례는, “之”字와 “志”字의 通假字, “采”字와 “菜”字의 通假字, “直”字와 “植”字의 通假字이다. 이를 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의 용례에 대한 通假字와 音變構詞의 詞義 발전 양상 대조표

詞義 발전 양상	通假字	音變構詞
“疑” : “擬”	쌍향성(雙向性)	단향성(單向性)
“福” : “富”		
“直” : “值”		
“之” : “志”	단향성(單向性)	
“采” : “菜”		
“直” : “植”		

셋째, 音變構詞의 原始詞와 衍生詞, 通假字의 本字와 借字 사이의 대응관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의 유형은 音變構詞의 原始詞가 通假字의 本字로 대응하고, 音變構詞의 衍生詞는 通假字의 借字로 대응하는 관계이다. 또 다른 하나의 유형은 音變構詞의 原始詞가 通假字의 借字로 대응하고, 音變構詞의 衍生詞는 通假字의 本字로 대응하는 관계이다. 다만 이러한 音變構詞와 通假字의 대응관계는 音變構詞와 通假字가 모두 단향성을 나타낼 때만 비교가 가능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音變構詞와 通假字가 모두 단향성을 나타내는 용례는 “之”字와 “志”字, “采”字와 “菜”字, “直”字와 “植”字 등이다. 이 용례들은 모두 音變構詞의 原始詞 “之”字, “采”字, “直”字는 通假字의 借字로 대응하고, 音變構詞의 衍生詞

“志”字,“茱”字,“植”字는 通假字의 本字로 대응하는 후자의 유형임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 陳初生,《金文常用字典》,西安:陝西大學出版社,2004.
- 馮其庸·鄧安生,2006,《通假字彙釋》,北京:北京大學出版社.
- G. B. Downer, Derivation by tone-change in Classical Chinese,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No.22, 1959.
- 郭錫良,《漢語史論集》(增補本),北京:商務印書館,2005.
- 郭錫良,《古代漢語語法講稿》,北京:語文出版社,2007.
- 郭錫良,《漢字古音手冊》(增訂本),北京:商務印書館,2010.
- 何大安,《規律與方向:變遷中的音韻結構》,臺北:中央研究所歷史語言研究所專刊之九十,1988.
- 黃坤堯,《經典釋文動詞異讀新探》,臺北:學生書局,2005.
- 季旭昇,《說文新證》,臺北:藝文印書館,2004.
- 蔣紹愚,《古漢語詞彙綱要》,北京:商務印書館,2005.
- 裘錫圭,《文字學概要》,北京:商務印書館,1988.
- 孫玉文,《漢語變調構詞考辨》,北京:商務印書館,2015.
- 王力,《漢語史稿》,北京:中華書局,1956/1980.
- 王力,《漢語詞彙史》,濟南:山東教育出版社,1986.
- 王海根,《古代漢語通假字大字典》,福州:福建人民出版社,2008.
- 王輝,《古文字通假釋例》,臺北:藝文印書館,1993.
- 王輝,《古文字通假字典》,北京:中華書局,2008.
- 周祖謨,《四聲別義釋例》,《問學集》,北京:中華書局,1949.
- 字書·音義書·韻書 -
- 《說文解字》,〔東漢〕許慎,北京:中華書局,1963.
- 《經典釋文》,〔隋〕陸德明著,黃坤堯,鄧仕樑校訂索引,臺北:學海出版社,1988.
- 《廣韻》,〔宋〕陳彭年,丘雍等重修,北京:中華書局,1960.
- 《群經音辨》,〔宋〕賈昌朝著,北京:商務印書館,1934.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Chinese Pronunciation-Change Words
and the Chinese Phonetic Loan Characters

Yum, Jae-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vocabulary generation methods of the ancient Chinese by comparing the Chinese Pronunciation-Change Words and the Chinese Phonetic Loan Characters. These two types of vocabulary have long been mixed in the concept of the Chinese Phonetic Loan Characters in a large category. For this reason, the dictionary containing the Chinese Phonetic Loan Characters has been stored in large quantities in the Chinese Pronunciation-Change Words. In addition, these two vocabularies, which are similar in characteristics to each other, are judged to be the Chinese Phonetic Loan Characters or the Chinese Pronunciation-Change Words with the same or similar documentary evidence that emerged during the Ancient Chinese perio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possible to use similar or identical documentary evidence when these vocabularies are identical, since the vocabulary and the sound dative have attributes of different levels of vocabulary use and vocabulary derivation. Therefore, a simple main character and a borrower should be regarded as the Chinese Phonetic Loan Characters when there is a simple transitive relation. However, when there is a strict Phonetic and semantic relation between primitive and derivative words, they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Chinese Phonetic Loan Characters but as the Chinese Pronunciation-Change Words.

Second, from the viewpoint of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acceptance, we divided those words into two types: a bi-directional type and a univocal type. In this paper, the examples of bi-directional type are “疑”字: “拟”字, “福”字: “富”字, “直”字: “值”字. the examples of unidirectional type are “之”字: “志”字, “采”字: “菜”字, “直”字: “植”字.

Third, the correspond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mitive and derivative words in

the Chinese Pronunciation-Change Words, and the original character and borrowed character in the Chinese Phonetic Loan Character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In this paper, we just have one type that the primitive word of the Chinese Pronunciation-Change Words corresponds to the borrowed character in the Chinese Phonetic Loan Characters, and the derivative word of the Chinese Pronunciation-Change Words corresponds to the original character character in the Chinese Phonetic Loan Characters.

Key words: Chinese Pronunciation-Change Words, Chinese Phonetic Loan Characters, Relationship of phonetic and semantic analysis, Relationship of borrowing words,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acceptance

〈국문제요〉

본 연구에서는 漢語의 通假字와 音變構詞를 비교하여 上古漢語의 語彙生成方法을 비교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 두 종류의 어휘는 예전부터 큰 범주에서 通假字의 개념 안에서 혼용 되어왔다. 이러한 까닭에 通假字를 수록한 사전에는 音變構詞 어휘들이 대량으로 수록되어 왔다. 또한 상고한어 시기부터 생성된 성격이 유사한 이 두 어휘는 상고한어 시기에 출현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헌증거를 가지고 通假字인지, 音變構詞인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通假字와 音變構詞는 어휘의 활용과 어휘의 파생이라는 서로 다른 층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어휘들 고증할 때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헌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本字와 借字은 단순한 假借關係만 있을 때는 通假字로 보아야 하지만, 原始詞와 滋生詞의 엄격한 音義關係가 존재할 때는 더 이상 通假字로 혼동하지 말고 音變構詞로 보아야 한다.

둘째, 通假字를 詞義 발전 양상의 관점에서 쌍향성이 있는 유형과 단향성이 있는 유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본 논문 通假字에서 쌍향성(雙向性)을 가지는 용례는, “疑”字와 “擬”字의 通假字, “福”字와 “富”字의 通假字, “直”字와 “值”字의 通假字이며, 通假字에서 단향성(單向性)을 가지는

용례는, “之”字와 “志”字의 通假字, “采”字와 “棗”字의 通假字, “直”字와 “植”字의 通假字이다.

셋째, 音變構詞의 原始詞와 滋生詞, 通假字의 本字와 借字 사이의 대응관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 音變構詞와 通假字의 대응관계를 논할 수 있는 용례들은 모두 音變構詞의 原始詞가 通假字의 借字로 대응하고, 音變構詞의 滋生詞는 通假字의 本字로 대응하는 관계였다.

주제어: 음변구사, 통가자, 음의관계, 가차관계, 어휘발전양상

이 논문은 2018년 7월 16일에 접수되어 2018년 8월 6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8년 8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